

공동육아협동조합 사단법인 등록 추진

“프로그램연구·정책·출판활동 위해 필요”...정부지원도 가능

우리어린이집, 서교동어린이집 등 지난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했던 협동조합 형태의 어린이집들이 사단법인 등록을 추진하는 등 활동영역을 크게 넓혀가고 있다.

이들 어린이집의 모태가 됐던 ‘공동육아연구회’(공동대표 정병호)는 26일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서 새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어린이집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사단법인으로의 전환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육아연구회’ 정병호 대표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 없이 갖벌이부부가 직접 출자금을 내 공간을 마련하고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됐던 협동조합 어린이집은 부모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동육아 프로그램 개발, 공동육아 정책와 작업 등을 위해서도 사단법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공동육아연구회’나 협동조합 어린이집이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교사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설립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우리어린이집(324-0933)에 이어 서교동 어린이집(323-4796), 충북 청주의 신나는어린이집(0431-55-6967), 대구의 씩씩한 어린이집(053-755-6779)으로 늘어났으며, 오는 10월 서울 강남구 우면동에 개설될 강남 공동육아어린이집(653-2368)이 조합원을 모으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 서울 강동지역, 경기도 부천·과천, 광주 등에서 공동육아 방식의 어린이집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공동육아연구회는 26일 공동육아 이념과 협동조합 어



협동조합 형태의 어린이집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사진은 우리나라 최초의 협동조합 ‘우리어린이집’.

린이집 활동 내용을 담은 70쪽짜리 회지 <공동육아>를 창간했으며, ‘공동육아 현장학교’ 프로그램도 전문과정과 어머니 학교를 새로 마련하는 등으로 공동육아 교사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박정숙 기자